

번호: OP-A-004					
제 목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유병률과 관련요인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its related factors in schoolchildren				
저 자 및 소 속	공경애1), 박보현1), 민정원1), 홍주희1), 이보은2), 홍영선3), 장남수4), 하은희1), 박혜숙1) 1)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 3)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4)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식품영양학과 Kyoungae Kong1), Bohyun Park1), Jungwon Min1), Juhee Hong1), Boeun Lee2), Youngsun Hong3), Namsoo Chang4), Eunhee Ha1), Hyesook Park1)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2) Division of Chronic Disease Surveillanc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3)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4)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al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분 야	역 학 [대사증후군]	발 표 자	공경애 전공의	발 표 형 식	구 연
<p>목적: 비만과 당뇨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제2형 당뇨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대사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관상동맥질환 및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들이 소아기부터 시작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유병 정도를 추정하고 소아의 생활습관 및 부모의 관련 질환 유병상태와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p> <p>방법: 서울의 한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총 531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대한 안내와 동의서 및 소아의 생활습관 및 부모의 관련 질환 상태에 관한 설문지를 가정으로 발송하고 연구에 동의한 300명 (56.5%)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15~16일에 걸쳐 신장, 체중, 허리둘레, 삼두박근 피부두께, 혈압을 측정하고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였다. 일부 검사가 누락된 39명을 제외하고 261명(남아 136명, 여아 125명)을 대상으로 하여 각 위험요인이 군집적으로 나타나는 유병상태를 추정하였으며, 대사증후군의 각 위험요인은 체질량지수 85 퍼센타일 이상,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 90 퍼센타일 이상, 공복혈당 110 mg/dl 이상, 중성지방 110 mg/dl 이상과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40 mg/dl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사증후군 위험군(위험요인 2개 이상)과 비위험군에서의 소아의 운동, 식사습관, TV시청시간 및 부모의 체질량지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교육수준의 차이를 카이제곱검정으로 분석하였다.</p> <p>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3개 이상을 가진 소아는 2.3%(6명)로 남자에서 2.2%(3명), 여자에서 2.4%(3명)이었고, 2개 이상의 위험요인을 가진 소아는 15.7%(41명)로 남자에서 11%(15명), 여자에서 20.8%(26명)이었다. 대사증후군 위험군(위험요인 2개 이상)에서는 비위험군에 비해 소아가 주 2-3회 이상 과식을 하거나 냉동식품 및 인스턴트식품을 하루 1회 이상 섭취하는 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소아의 운동 빈도나 TV시청 시간, 식사를 거르거나 외식을 하는 빈도, 간식의 횟수나 편식여부와는 관련이 없었다. 또한 부모 중 하나가 비만이거나 둘 다 과체중인 경우, 아버지가 현재 하루 15개피 이상의 흡연을 하는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으며 부모가 모두 대졸인 경우에는 낮았다. 부모가 당뇨가 있는 경우에도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2개 이상인 소아의 빈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부모의 고혈압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2~3학년에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3개 이상의 유병률은 2.3%, 위험요인 2개 이상의 유병률은 15.7%였다. 소아의 식사 습관 및 부모의 체질량지수, 흡연, 교육여부가 대사증후군 위험과 관련이 있음이 보여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군집적으로 나타나는 소아의 발견, 관리와 함께 가족력 및 생활습관에 관한 평가와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p>					